

레코딩 현상과 대중음악 연구의 현재: IASPM 2025 학술대회 리뷰

김 경 화
(한양대학교 강사)

2025년 7월 7일부터 11일까지 프랑스 파리 소르본 누벨 대학교(Université Sorbonne Nouvelle)에서 제23차 국제대중음악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opular Music, 이하 IASPM)가 개최되었다. 이번 학회의 공식 주제는 “Recording Popular Music”으로,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약 150편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행사는 7인의 기조강연과 병행 세션, 패널, 라운드테이블, 워크숍 등으로 구성되어, 대중음악 연구의 방법론적, 이론적 확장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이번 학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레코딩’(recording) 현상을 둘러싼 동시대의 쟁점들을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는 점이다. ‘레코딩’은 오랫동안 대중음악의 전제 조건이자 기술적 기반으로 여겨져 왔으나, 이번 학회는 그것을 단순한 기술적 절차나 매체적 도구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레코딩이라는 오래된 개념을 매개로 음악적 생산과 청취, 기억, 신체, 정체성이 구성되는 과정을 탐구하며, 음악학, 인류학, 페미니즘, 기술 연구를 아우르는 대중음악 연구의 현재적 전환점을 진단하려는 시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기획은 오늘날 인공지능(AI), 플랫폼, 스트리밍, 데이터화 등 급변하는 청각 환경 속에서 대중음악 연구가 새롭게 요청받는 이론적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읽힌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번 학회의 기조강연에서 선명하게 드러났다. 5일간의 학회 기간 동안 일곱 차례의 기조강연이 진행되었으며, 각 강연

은 ‘레코딩’을 둘러싼 기술적, 사회적, 미학적 쟁점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대중음악 연구가 직면한 이론적 전환의 방향을 구체화했다.

7월 7일, 학회 개최 첫 기조강연에서는 앙투안 엔니옹(Antoine Hennion)과 라그닐 브뢰비그(Ragnhild Brøvig)가 각각 발표를 맡았다. 엔니옹은 “Recording Music: Saving It, or Making It?”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레코딩을 보존의 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음악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적 과정으로 해석하며, 음악이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지는 행위’임을 강조했다. 그는 청취와 기록의 역동적 관계를 통해 레코딩이 음악적 실천의 본질적 일부임을 보여주었다. 브뢰비그는 “Sampling’s AH, AHA, and HAHA”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샘플링의 미학과 정치성을 분석하며, 녹음이 창작의 확장된 형태로 작동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는 샘플링이 만들어내는 순간적 인식과 유희적 전복이 오늘날 대중음악의 창작과 수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논의는 다음 날 기조강연에서도 확장되었다.

7월 8일 둘째 날에는 암파로 라센(Amparo Lasen)과 딜런 로빈슨(Dylan Robinson), 마틴 도트리(Martin Daughtry)가 강연을 진행했다. 라센은 “The Power of the Erotic in Dancing as an Experience of Recording and Unrecording”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춤과 몸의 경험을 통해 레코딩을 다시 사유하며, 이를 고정된 기록의 관점에서 벗어나 ‘탈기록’(unrecording)의 과정으로 확장했다. 그는 몸의 실천이 어떻게 기록과 삭제, 재기록의 경험을 수반하며 레코딩의 의미를 재구성하는지를 탐구했다. 로빈슨과 도트리의 공동 발표 “Love Songs in the Liminalsphere”에서는 목소리와 노래가 경계적 공간(liminal sphere) 속에서 재배치되는 과정에 주목했다. 이들은 특히 탈식민적 청취와 비서구적 목소리의 위치를 부각시키며, 레코딩을 통해 재생산되는 문화 권력의 구조를 비판적으로 성찰했다.

7월 9일 셋째 날에는 피오렐라 몬테로-디아즈(Fiorella Montero-Diaz)와 사이먼 자고르스키-토머스(Simon Zagorski-Thomas)가 강연을 진행했다. 몬테로-디아즈는 “Recording as Activism in Latin America”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라틴아메리카의 맥락에서 레코딩이 단순한 기록을 넘어 사회적 저항과 정치적 활동의 도구가 되어온 과정을 제시했다. 그는 억압된 목소리를 드러내고 집단적 연대를 구축하는 수단으로서 레코딩의 역할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검토했다. 사이먼 자고르스키-토머스(Simon Zagorski-Thomas)는 “What Am I Missing? Recordings as Schematic Representations”에서 레코딩을 실재(reality)의 복제나 재현이 아니라 청취 경험을 구조화하는 도식적 표상(schematic representation)으로 규정했다. 그는 녹음된 소리가 인지적, 문화적 필터를 거쳐 구성된 결과물임을 지적하며, 음악 생산과 수용의 인식론적 문제를 새롭게 조명했다.

7월 10일 넷째 날에 진행된 마지막 기조강연으로 마이크 앨린(Mike Alleyne)이 “Culture, Commerce, and Authenticity: Black British Recordings in Context”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흑인 브리티시 음악의 레코딩이 문화적 정체성, 상업 구조, 그리고 진정성의 담론 속에서 형성되는 과정을 고찰했다. 영국 대중음악 산업에서 흑인 아티스트의 사운드가 시장 논리와 문화 정치의 긴장 속에서 어떻게 위치 지어지는지를 분석하며, ‘레코딩’이 인종과 계급, 정체성의 문제를 매개하는 복합적 장임을 보여주었다. 이번 학회의 쟁점들은 기조강연과 개별 세션 전반을 가로지르며, 오늘날 레코딩 현상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을 다층적으로 드러냈다.

개별 세션 발표들은 특히 플랫폼 정치와 경제, 기술과 매체, 젠더와 정체성, 지역성과 탈식민성, 그리고 기록성과 현장성 교차라는 다섯 개의 축으로 모아진다. 이 다섯 축은 레코딩을 둘러싼 동시대 대중음악 연구의 주요 쟁점을 보여주며, 음악을 단순한 기술적 산물로 보던 관점을 넘어 그 산업적 구조와 사회적 관계, 감각적 경험, 그리고 실시간성과 재현성의 교차 속에서 새로운 의미가 형성되는 과정을 조명했다. 이를 통해 이번 학회는 대중음악 연구가 음악을 둘러싼 기술적 조건과 사회적 수행성, 감각적 맥락을 함께 사유하는 다학제적 학문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가장 두드러진 흐름은 첫째, 플랫폼화와 저작권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경제적 논의였다. “Recording, Rights and Remuneration Models”(7월 7일, 오후 C106) 세션을 비롯한 여러 발표들은 스트리밍 서비스와 플랫폼 자본주의가 음악 산업의 가치 체계와 노동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들 논의는 음악이 점차 창작자의 개별적 표현에서 벗어나 청취 데이터와 알고리즘, 재생 시간 등으로 작동하는 데이터 경제의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 비판적으로 주목했다. 또한 “From Recording to Data and

Streaming Platforms”(7월 8일 오전, C111; 7월 9일, 오전 C110) 세션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레코딩의 의미 자체를 바꾸고 있음을 논의했다. 레코딩은 이제 소리의 보존이나 재현이 아니라, 청취 행위의 데이터화를 매개하는 기술적 과정으로 작동한다. 이 과정에서 음악은 청취자의 클릭과 반복 재생을 통해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순환적 상품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논의는 ‘음악 산업’이라는 제도적 차원을 넘어, 청취자 개인의 행위가 자본의 흐름과 결합하는 청취의 정치경제학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예컨대 플랫폼은 사용자 취향을 데이터로 수집해 재생 목록을 구성하고, 그 데이터가 다시 음악의 가치와 보상 구조를 결정하는 체계를 만든다. 결국 플랫폼화된 레코딩 환경에서 음악은 기술, 경제, 정동이 교차하는 매개체로 기능하며, 이는 대중음악 연구가 기술적 진보를 긍정적으로만 평가하던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플랫폼 권력과 청취의 종속성이라는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다.

둘째, 기술 매체의 변화가 레코딩 실천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Digital Audio Workstations”(7월 7일, 오전 C116)과 “Home Studios”(7월 9일, 오전 C115) 세션에서는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DAW)의 확산과 홈 스튜디오의 대중화가 음악 제작의 접근성을 비약적으로 넓히는 동시에, 창작 노동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논의했다. 대형 스튜디오 중심의 제작 환경이 개인화된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가면서 음악 생산은 산업적 분업 체계를 벗어나 자율적이고 분산된 네트워크형 실천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한 논의들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창작의 민주화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불안정한 노동 구조와 기술 의존성을 심화시키는 양면성을 드러냈다. 또한 “Record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7월 8-9일, C106) 세션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단순한 보조 수단을 넘어, 음악적 창의성과 저자성(authorial agency)의 경계를 재편하고 있음을 다루었다. AI 작곡 도구와 자동화된 편집 시스템은 인간의 직관과 계산적 패턴이 결합된 새로운 음악적 행위를 만들어내며, 레코딩의 과정 자체를 인간-기계 협업의 장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 논의는 기술이 단순히 창작을 지원하는 외적 도구가 아니라, 음악적 사고와 표현의 구조를 내부에서 재조정하는 능동적 행위자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결국 이러한 세션들은 레코딩을 기술적 산

물이 아니라 창작, 노동, 감각이 교차하는 복합적 수행의 장으로 제시했다. 음악 생산의 주체가 다층화되고, 창작 행위가 알고리즘적 사고와 결합하면서 음악 ‘만들기’(making) 자체가 변화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러한 관점은 대중음악 연구가 기술적 혁신을 단순히 도구적 진보로 이해하기보다, 그 기술이 구성하는 새로운 주체성, 그리고 청취·창작의 감각적 형식을 비판적으로 탐구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젠더와 퀴어 퍼스펙티브가 중요한 연구 주제로 제시되었다. “Recording and Gender Studies”(7월 7-10일, 다수의 세션)에서는 스튜디오 환경에서의 젠더 권력 구조와 기술적 전문성의 젠더화, 그리고 여성 엔지니어와 프로듀서의 배제 등 음악 생산의 장을 구성하는 사회적 불평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들 발표는 레코딩이 단순한 기술 행위가 아니라 누가 기술을 다루고, 누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사회적 제도이자 권력의 장임을 드러냈다. 즉, 레코딩의 과정에는 이미 젠더화된 위계가 내재해 있으며, 기술적 수행성 자체가 성별 규범과 결합해 구성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한편 “‘J’ai Deux Amours’: Queer Articulations”(7월 8일, 오전 C203) 세션은 레코딩을 젠더 수행성과 정체성의 교차점에서 탐구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발표자들은 퀴어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목소리와 신체, 감정을 기존의 음향적 규범을 교란하는 방식으로 기록함으로써, 레코딩을 저항과 자기 서사의 수행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분석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레코딩을 재현의 수단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정체성과 감각이 새롭게 구성되는 청취의 공간으로 제시했다. 이와 같은 논의들은 레코딩을 기술·산업적 행위로만 이해하는 관점을 확장시켜, 그 과정이 젠더 규범을 재생산하거나 해체하는 사회적 수행임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청취의 행위가 젠더화된 감각의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부각하며, 대중음악 연구가 기술, 감각, 사회적 정체성을 함께 사유하는 다학제적 지평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넷째, 글로벌 다양성과 지역적 특수성이 부각되었다.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전쟁 상황의 우크라이나 등 비서구적 맥락에서 레코딩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사례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다. “Mondes des studios et studios du monde: fabriques sonores du Sud global”(이하 “Studios du Sud Global” 패널, 7월 7일, 오후 C203) 세션을 비롯해 “Recording

Popular Music and Global Cultural Diversity”(7월 8-10일, 오전과 오후 C113), “Ukrainian Popular Music in Times of War”(7월 8일, 오후 C204), “Music Heritage, Migration and Identity”(7월 9일, 오후 C204) 등의 세션들은 레코딩을 지역의 사회적 조건과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의미를 형성하는 문화적 실천으로 조명했다. 특히 “Studios du Sud Global” 세션은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등 비중심적 지역의 스튜디오 문화와 제작 환경을 중심으로, 제한된 기술 인프라 속에서도 고유한 사운드 미학과 협업 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논의는 ‘전문성’이나 ‘음질의 표준’처럼 서구 산업이 설정한 기준이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함을 드러냈으며, 레코딩의 기술적 조건이 문화적 가치 판단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Ukrainian Popular Music in Times of War” 세션에서는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에서 레코딩이 단순한 보존의 수단이 아니라, 공동체의 연대와 저항, 그리고 생존의 증언으로 기능하는 과정을 탐구했다. “Music Heritage, Migration and Identity” 세션에서는 이주와 망명,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음악 기록을 통해 레코딩이 집단적 정체성과 문화적 기억을 재구성하는 장치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논의들은 레코딩을 서구 중심의 산업 모델이나 기술 발전의 연속선으로 이해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역성과 역사적 조건이 교차하는 문화적 실천의 장으로 재위치시켰다. 이러한 논의들에서 레코딩은 특정한 기술이나 미학의 표준에 종속되지 않고, 각 지역의 사회적 조건과 역사적 맥락 속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다층적 감각의 언어로 제시되었다. 이번 학회는 이와 같은 관점을 통해, 대중음악 연구가 서구 중심적 모델을 넘어서 탈식민적 감각을 바탕으로 음악의 생산과 기억을 새롭게 조직하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섯째, 레코딩과 라이브니스가 주요 논의의 주제로 부상했다. 이 주제는 7월 8일부터 11일까지 이어진 “Recording and Liveness, Recording and Performance” 주제의 일련의 세션들(7월 8일 오후, C113, 7월 9일 오전, C116, 7월 10일 오전, C111과 오후 C110, 7월 11일 오전, C106)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졌으며 레코딩과 공연, 실시간성과 재현성의 관계를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두드러졌다. 발표자들은 레코딩을 공연의 결과나 기록으로 환원하

지 않고, 공연의 감각적 현존을 형성하고 확장하는 과정적 실천으로 이해했다. 즉, 레코딩과 라이브니스의 경계가 기술과 매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점점 더 모호해지며, 두 영역이 서로를 구성하는 관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논의는 기술 환경의 급속한 진화 속에서 ‘라이브’ 개념이 새롭게 정의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텔레비전 중계, 온라인 스트리밍,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DAW), 프로그램 뮤직(PGM),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퍼포먼스 등은 공연의 현장성과 매체적 중개가 결합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레코딩은 실시간성과 지연, 현장성과 매체성이 교차하는 복합적 시간의 장으로 작동하며, 음악의 감각적 경험을 재구성하는 기술적·미학적 기반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진정성’(authenticity)의 문제는 이번 세션들의 중요한 비판적 초점이었다. 발표들에서는 록, 재즈, K팝 등 다양한 장르에서 레코딩과 라이브가 교차하며, ‘진짜’와 ‘가짜’라는 이분법적 구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드러냈다. 대신 매개된 라이브(mediated liveness)의 개념이 부상하며, 공연의 생동감이 실연의 여부가 아니라 녹음, 편집, 송출, 청취의 과정 속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라이브니스가 기술적 매개와 청취자의 감각적 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수행적 범주임을 보여주었다.

이번 학회에는 한양대학교 음악연구소의 네 명의 연구자가 참여했다. 이들의 발표는 각각 다른 매체와 청취 환경을 다루면서도, 공통적으로 레코딩과 청취, 감각과 매체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탐구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정경영은 “From Coldplay to Purcell: Music Videos as a Bridge between Classical and Popular”에서 뮤직비디오를 ‘확장된 레코딩’의 형태로 바라보며, 클래식 음악이 대중음악의 영상 언어를 차용할 때 발생하는 의미 변화를 분석했다. 그는 퍼셀의 ‘디도의 라멘트’(Dido’s Lament)를 콜드플레이의 《더 사이언티스트》(*The Scientist*)와 병치해, 영상의 ‘리버스’(reverse) 기법이 음악의 시간성과 정동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를 탐구했다. 이를 통해 시청각 매체가 장르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클래식 음악의 감상 행위까지도 새로운 청각적·시각적 리듬 속에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김경화와 박수인은 “Echoes of the Past: Lo-fi Hip Hop in the Streaming Age and New Listening Trend”에서 스트리밍 시대 로파이 힙

합(lo-fi hip hop)의 부상과 그 청취 방식에 주목하였다. 두 발표자는 로파이 힙합이 아날로그적 잡음과 불완전성을 미학적 자산으로 활용하여, 디지털 환경 속에서 청취자에게 ‘상상된 기억’(imagined memory)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청취 경험을 제공함을 밝혔다. 이는 플랫폼화된 레코딩 문화가 어떻게 정동적·감각적 차원에서 수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나아가 이들은 플랫폼 청취가 단순한 수동적 감상이 아니라, 청취자가 자신의 정서와 리듬을 조율하기 위해 전략적 청취를 수행하는 행위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분석은 현대의 청취를 자기 관리와 정동 조절의 기술로 재위치시키며, 듣기를 수행성과 감각의 문제로 확장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권현석은 “Listening to Vinyl Records in the Digital Age: Expanding Musical Narratives into Listeners’ Bodies”에서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 음반 재유행을 통해 청취 경험의 감각적 전환을 탐구했다. 그는 ‘바이닐애플라스틱’(Vinyl & Plastic)¹⁾을 사례로, 바이닐 청취가 단순한 복고적 취향이나 향수의 표현이 아니라 온몸으로 듣기(whole-body listening)를 통해 음악적 내러티브를 신체의 감각 속으로 확장하는 행위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청취는 시각, 촉각, 후각이 결합된 다감각적 경험으로, 음악을 다시 ‘몸으로 사유하는’ 청취의 형태로 제시한다. 이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청취의 물질성과 감각적 수행성을 복원하려는 시도로, 오늘날 청취가 어떻게 신체적 행위이자 감각적 실천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제시했다.

이번 국제 대중음악학회는 ‘레코딩’이라는 주제를 매개로, 대중음악 연구의 지평이 기술적·산업적·감각적 차원에서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주었다. 발표자들은 레코딩을 음악적 생산과 청취, 사회적 관계가 교차하는 동적 과정으로 이해했으며, 이를 기술, 신체, 정동, 기억이 맞물리는 실천의 장으로 탐구했다. 이러한 접근은 레코딩을 매체적 결과가 아니라 생성의 과정으로 바라보려는 새로운 연구 흐름을 보여준다. 특히 플랫폼 경제, 젠더, 탈식민성, 라이브니스 등을 포괄적으로 다룬 다양한 세션들은 오늘날 음악

1) 서울 이태원에 위치한 ‘바이닐애플라스틱’은 약 1만여 종의 바이닐 음반과 CD를 보유한 음악 전문 공간이다. 이곳은 단순한 판매점에 그치지 않고, 방문객이 음악을 직접 감상할 수 있는 청취 공간(listening zone)과 음악 관련 전시 및 이벤트가 열리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기능한다.

이 ‘기록되고 들리는 방식’ 자체가 사회적 관계와 권력 구조, 감각 체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러한 논의는 대중음악 연구가 단순히 산업 구조나 장르의 경향을 분석하는 차원을 넘어, 청취와 기록의 문화정치학을 사유하는 학제적 학문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번 학회는 레코딩이라는 오래된 개념을 통해 음악과 사회, 기술과 감각을 새롭게 엮어내며, 동시대 음악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한글검색어: 레코딩, 대중음악 연구, 플랫폼화, 젠더, 탈식민성, 라이브니스

영어검색어: Recording, Popular Music Studies, Platformization,
Gender, Decoloniality, Liveness

